

재연임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재수 사장

“식품 마케팅 청년 전문가 육성 전폭 지원”

30년 농정전문가...공공기관 CEO 최장수 한국출판 경제계 도입·농식품 창업교육 청년 취업 대학생 네트워크 발족 등 성과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하며, 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해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유통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장에 연임된 김재수 사장은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을 늘려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27일부터 1년간 연임한 김 사장이 임기 중 성과를 인정받아 두 번째 연임에 들어간다.

김재수 사장은 지난 4년간 다양한 가치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거래액 2조원 달성’ ‘국가 전체 대비 2배 높은 농식품 수출증가율 달성’ 등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 수급안정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김 사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돼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국민신뢰에 보답하고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aT의 고유업무 분야에서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116개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 우수 등급 A를 받은 15개 기관 중 농업관련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좋은 실적과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국출판 최초 경제계 도입, 농식품 창업교육 실시,



청년 취업을 위한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 농식품 미래 기획단(안·YAFF) 발족 운영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점도 지난 임기의 성과로 꼽았다.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세계

에 ‘한국 농업의 힘’을 알리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사장은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 식품기업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식품분야 글로벌 마케팅기법 및 영업전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세계 각국 유명 식품기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한국 청년들이 해외 인턴십체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양한 구호 활동과 빈곤퇴치 운동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농업분야, 특히 국제적인 주요 이슈(issuer)나 아젠다(agenda)를 제시하고 만들어 제3국의 농업발전이라든지,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구호활동 조달과 원조 등 공익적인 일들을 펼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식량생산증대를 위한 국제포럼 구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AFI(Asia Food Initiative)와 같은 기구를 창설해 식량과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모여 포럼을 주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 제6대 aT사장에 취임한 김 사장의 두 번째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16년 11월까지 1년이다. 경북 영양군 출신인 김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30년 넘게 농업분야 공직 생활을 거친 농정전문가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도 도입에 솔선수범하는 등 전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6.29 (+12.59)
- ▲ 금리 (국고채 3년) 1.77% (+0.01)
- ▼ 코스닥 687.86 (-0.43)
- ▼ 환율 (USD) 1153.80원 (-4.70)



교육·교통요지에 ‘첨단 우방 아이유셀’

북구 용두동에 중소형아파트 256가구 공급

광주의 신주거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북구 용두동에 ‘SM (주)삼라’와 ‘SM 우방건설’이 분양하는 첨단 우방 아이유셀 25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첨단 우방 아이유셀이 들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339번지 일원은 광주 연구개발 특구와 주변 산업단지는 물론 첨단, 양산, 일곡 등 대규모 택지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핫플레이스다. 특히, 광주 교통의 위동맥인 빛고을대로, 임방울대로, 하서로 등의 쾌속 교통망을 끼고 있어 인근 택지지구의 수준 높은 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누릴 수 있으며 건설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주거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용두초, 용두중 등의 학교와 도보 거리에 위치함은 물론 광주의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일곡지구 학군을 공유하고 있다.

첨단 우방 아이유셀은 59㎡, 74㎡, 84㎡의 선호도 높은 인기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74㎡s는 3.5BAY, 84㎡는 4BAY 혁신평면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켜 쾌적성을 높였으며 59㎡ 타입 역시 소형타입의 문제점을 개선한 짜임새 있는 실속설계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74㎡와 84㎡에는 펜트리 특화설계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펜트리는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수납이 가능한 대형 주방수납 공간으로 일반 평면에서 발생하는 죽은 공간, 이른바 데드스페이스(Dead Space)를 실용성 높은 공간으로 재창조해 생활면적을 확장시키는 최신 트렌드의 공간 구성이다. 모델하우스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 502-7번지에 위치하며, 27일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1577-277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 보유 특허 中企에 무상 개방

2만4000건 전환...총 2만7000건 제공

삼성전자가 2만7000건의 등록 특허를 국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만7000건의 등록 특허를 국내 중소기업에 개방, 이 중 3000건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유상으로 개방했던 나머지 2만4000건의 등록 특허를 이번엔 모두 무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무상으로 개방하는 등록 특허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daegu)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ccci.creativekorea.or.kr/gyeongsangbuk)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특허 개방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래창조과학부·특허청과 협력, 지난 6월부터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총 3만6000건의 등록 특허를 유·무상으로 개방해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가계 ‘빈곤의 늪’

기업규모 영세...가계 소득·증가율 전국 평균 이하

광주·전남 가계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연평균 증가율도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 한 ‘광주·전남지역 가계소득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3년 중 지역 가계소득은 가구당 3580만원이다. 광주는 4030만원, 전남은 324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4600만원)에 밀려 1300여만원 적은 액수다.

지난 2008~2013년 광주·전남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전국평균 5.1%나 다른 지역의 4.9~6.8%보다 소득 증가 폭도 작았다.

2013년 지역총소득(GRI) 가운데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2.8%로 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다른 경제권역에 비

해 낮았다. 이는 고용 등 가계소득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가계의 주요 소득원인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어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 지역 가계의 근로소득을 계층별로 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0.8%를, 상위 10~20%가 전체 소득의 19.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소득 불균형 현상은 이 지역 취업자 가운데 급여수준 등이 낮은 비정규직 비중이 크고 60세 이상의 노령 취업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1개 자치단체-관광공사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첫 회의

익산국토청 주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24일 청사 회의실에서 신안군 등 서·남해안 해상교량과 관련 21개 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익산국토청은 참석자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및 거점개발방안 수립 용역’ 과정에 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용역은 지난 8월

에 시작해 오는 2017년 7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상교량별 및 거점별 스토리텔링 구축과 관광자원화 방안 ▲지역 축제 및 행사 등과의 연계 방안 ▲현재 사업이 시행중인 교량 현황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광수 익산국토청 도로시설국장은 “전국적인 사례를 검토해보면 교량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익산국토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용역에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명품 해상교량 관광자원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강진칠량봉황옹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옹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옹기입니다

남도의 읍자락 길에서 옹기를 빚는 정윤석씨 정명(47) 부자

A 2말 40kg 40L, B 1말 20kg 20L, C 1.5말 15kg 15L, D 3말 60kg 60L, E 2말 40kg 40L, F 1말 20kg 20L, G 0.5말 10kg 10L

강진칠량봉황옹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광주·전남 프리모남가발

대산 프리모남가발

기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남가발